

■ 광주 구청장 2019 신년사

# “경제활성화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김병내 남구청장

## 대촌동-나주 혁신도시 연결해 에너지 산업 선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최근 “주민들과 약속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광주시와 협력해 에너지 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메카인 대촌동 일대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연결하면 남구가 에너지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후된 송암 산업단지는 문화융합형 4차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

리를 제공해 서민 생계 지원과 고용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남구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또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등 전통시장은 특성화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

양림동과 사직동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노후마을은 재정비한다.

김 청장은 “올해 3월부터 농촌 테마공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인근에 있는 빛고을공예장작촌과 고씨음전수관을 연계해 주민들이 대촌 관광문화벨트에서 특화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화교육 특구 사업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 유치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생활센터와 치매 센터를 세우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조성해 재활 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콜센터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명소화 사업과 각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도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백운광장 일대 골목과 상권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

이를 통해 백운광장 일대가 광주 남부의 중심 상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전망하고 있다.

마을 역사박물관을 세우거나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하는 등 주민 주도형 특화 마을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분장 해결센터 지역 소통방도 확대 운영한다.

김 청장은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하고 소통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해 주민 모두 하나 되는 남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동구, 청년 주도하는 정책 본격 추진

### 구청참여 제도화·일자리 창출 등 지역청년 육성기대

광주 동구가 올해부터 청년 구청참여 제도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청년구청참여 제도화 △청년프로젝트 지원 △청년창업지원 체계 구축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청년층 구청참여 제도화를 위해 구위원회 일일직무(위촉직 10%)를 청년층으로 의무화하는 ‘청년배당제’를 시행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출중한 청년정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참여 예산제’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공모를 통해 지역청년들이 직접 제안·실행하는 청년프로젝트에 총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8명을 모집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 등 청년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율리 미취업 청년 28명을 선발해 문화거점시설·도서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 일 경험 지원,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동구는 또 2월 청년창업허브센터(구 벤처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지원,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청년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ghszk@



광주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안전 캠페인 벌여  
광주 서구청과 지역자율방재단은 2019년 새해를 맞아 최근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 전남도, 기초연금 인상... 무료 예방접종 확대

###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 새해 복지시책 발표

###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등 16건 시행

전남도가 새해를 맞아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 새해 복지시책을 발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년 새해부터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16건의 보건·복지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한다.

분야별로 저소득층 시책의 경우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35만 원에서 138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

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사망·실직·질병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재산 기준을 농어촌의 경우 7천259만 원 이하에서 1억 1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를 4인기준 117만 원에서 119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자활근로를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교육 고취를 위해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노인 시책의 경우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시장형 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사업량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의 지원단가를 3천500원에서 4천 원으로, 간식비는 800원에서 1천500 원으로 인상을 지원한다.

또한 4월 1일부터 기초연금기준액을 월 25만 원부터 30만 원(부부가구 월 48만 원)까지로 인상한다.

장애인 시책의 경우 1월부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새로 지원한다.

4월 1일부터는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설치한다.

7월 1일부터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

도에 따라 중증 및 경증으로 변경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보건 의료 시책의 경우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중 8개월 미만 영아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각각 무료로 새로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한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0%를 지원한다.

정찬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19년 더욱 강화된 보건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추진으로 도민의 복지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어려운 이웃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남구, 농촌 생활환경·생산기반시설 정비

### 18일까지 농업 기반시설 현지 조사 등 실시

광주 남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7일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19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과 생산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경지 정리 및 장마철 비 피해로 인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곳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민원이 접수된 지역에 대한 조사에 추가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실시계획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으로 위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 바우처 카드 지원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2019 수강생 모집

# 권 불교문화예술선원(禪院)

Buddhist Culture and Arts



## 무봉스님과 함께 하는 달마그리기와 禪

### 달마

본성이 바로 복이며 마음이 곧 복이다. 동아시아 불교의 1대조사 보리달마 무봉스님과 함께 참선을 통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삶의 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직접 달마어록과 함께 내 자신에 맞는 달마를 그려 나와 가족, 남을 위해 달마의 복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봉스님**  
무봉선원 원장 (중국 연변대 동양화 전공)  
경남과기대/광주대 평생교육원 강사  
아시아미술대전추천작가  
시사문단 시인(2018)  
저서- 절은날의 내면여행(2013), 달마의 큰 웃음(2018)  
전시- 달마의 큰 웃음전(서울/광주/진주 등 전국순회전)

**\* 수강안내 \***  
기간 : 2019년 1월 10일 ~ 6월 27일(총20강)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2시간)  
강의장소 : 상무지구 불교방송(동양빌딩 23층)  
수강료 : 월 15만원 (부가세 포함)

## 마음챙김 명상과 요가 (MBSR)

### 명상 요가

뇌 과학으로 검증된 불교 마음챙김 명상법과 요가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려 더 깊은 경지에서 지친 삶에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 속에 건강한 삶의 의미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강사 | 김인중**  
북방불교와 남방불교를 공부한 뒤 근본불교의 열처경 스의경전으로 특화된 수행자로 현재는 과학과 불교가 만난 과학불교(MBSR/MBSR-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매뉴얼)을 전파하고 있다.  
**요가강사 | 김인중**

**\* 수강안내 \***  
기간 : 2019년 1월 8일 ~ 6월 25일(총20강)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2시간)  
강의장소 : 상무지구 불교방송(동양빌딩 23층)  
수강료 : 월 15만원 (부가세 포함)

♥ 2019년 1월 1일부터 달마 첫 전시회 ♥ 첫 개강시 10% 할인 이벤트 ♥ 두과목 신청시 수강료 별도 문의